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9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그 視空間的 의미와 成功 전략



인터뷰 :

기성시가자·워터프런트 도시재생 컨퍼런스 2009 세계환경포럼



I/D/I/소/식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여유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09년도 한·러간 KEET-ESI 공동 워크숍' 개최(...)

Zoom INcheon



꿈을 이루는 도시
Surprise 인천 서구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서구는 137.05km² 면적에 40만명의 인구가 모...

도시동향



투모로우시티 (Tomorrow City)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기간 중 u-City 체험관을 전시하고 있는 투마...

IDI연구



자원봉사자와의 만남
지난 9월 4일,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내에서 일반인, 통역, 학생 ...

인천지표



관광객과의 만남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공간을 여유롭게 관람하고 있는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그 視空間的 의미와 成功전략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방종설 사무총장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인천 그리고 특히 송도국제도시를 주목해왔다. ‘수상도시 베니스, 뉴욕의 센트럴파크, 모로코의 마라카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을 모두 합친 듯한 꿈의 도시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송도가 이제는 차세대 동북아 금융 및 비즈니스의 허브도시가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자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외신보도가 아니더라도, 인천은 오는 2020년까지 물류와 첨단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동아시아의 변방도시 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선결적으로 극복되어야만 하고, 중동의 두바이가 그랬듯이 인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선택된 빅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의 산물로서 기획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와 기업유치, 인천의 잠재력과 현재적 도시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마케팅이자 브랜드 마케팅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축전의 전략목적은 단지 인천의 주관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인천이라는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시대적 지역적 배경과 환경에 전착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정치 행정적 중심을 의미하는 ‘도(都)’와 시장을 의미하는 ‘시(市)’의 합성어다. 도시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들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은 경쟁을 키우고 경쟁은 기술을 낳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역사를 일관하여 경쟁이 그 범위와 형태에서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그 정도에서 점점 더 치열해져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펼쳐지는 전 지구적 교류와 경쟁양상은 보통사람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시화되고 있는 경쟁관계는 ‘도시’간 경쟁이다.

요컨대, 지난날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포섭되어 있던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이제는 거꾸로 국가를 상징하고 내포하고 대표하게 되었다. 지난 20세기에 기업과 도시는 국가의 구성요소이자 국가경쟁력으로 내포되어 표현되었다면, 21세기에는 주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도시 간 경쟁이 국가 간 경쟁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이나 UAE라는 국가보다 상하이나 선전, 두바이라는 도시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그렇다. 세계적 도시학자 피터 홀(Peter Hall)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네트워크된 세계 속에서 정보와 자원의 교역에서 핵심 결절점 역할을 하는 소수의 도시를 '국제도시(global cities)'라고 정의하였다. 상하이나 두바이의 지향이 이것일 수 있다.

왜 그런가. 글로벌 도시 혹은 세계 속에 핵심 결절점이 된다는 것은 정보와 자원 그리고 그 교역을 장악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럴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경쟁력인데, 지명도, 명성, 신뢰도, 매력, 잠재력 요소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지만 마케팅의 관점에서 브랜드 가치(Brand Value)로도 표현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한 시장에서 브랜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단지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그렇다면 글로벌 도시를 향한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한 발 늦게 뛰어 든 우리 인천은 어떠한가. 대외적으로 전 지구적 탈국가화, 사람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의 진전을 배경으로 인천은 이제 오랜 주변부적 질곡을 뒤로하고 새로운 주체적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최상의 물적, 제도적 기반이 동아시아의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라는 인천의 미래 발전전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과 수도권의 2,300만 명 인구는 이제 무한한 인적자원을 가진 거대 배후시장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10년 안에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세계일류도시 진입이라는 인천의 비전은 가장 가능성 있는 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단지 인천의 발전전략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실현이라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발전전략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표현되었고, 그 최초로 지정된 인천은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갈무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려는 인천에게는 주변도시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확실한 교두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비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길은 현재의 위치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다. 인천의 비전, 즉 글로벌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인천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검증받고 세계의 인적, 물적자원이 교류되는 결절점이 되기에, 인천이라는 이름과 그 매력과 힘은 세계 속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아내지 못했다. 바람직한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는, 현실에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면서도 그 향상여하에 따라 현실에서 비전으로 성큼 내딛게 하는 가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인천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어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려는 주변 국가와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Nut Cracker에 낀 호두신세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특히,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지난 베이징올림픽, 오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이목과 자본을 독식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주요 도시들은 세계적 빅 이벤트의 유치나 개최에 국가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이를 도시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활용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훌륭한 계기가 된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불리는 박람회 행사기간과 전시, 이벤트와 국제회의 등 그 종합적 성격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도시 브랜딩 수단이 된다. 적지 않은 우리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진력을 기울여 박람회 성격의 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냉엄한 글로벌 도시간의 경쟁에 후발로 뛰어 든 인천으로서는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당위적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사업인 세계도시축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실행전략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추구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제적 범주에서 전 지구적 도시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구현까지를 탐색하는 이른바 '도시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제도구축의 중심지위 획득이다. 80일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콘퍼런스가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와 물 문제,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 교통과 물류를 주제로 지구적 담론을 조직하고, '아태도시정상회의'와 '세계환경포럼'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이 그 결과물을 의미 있는 인천선언(가칭) 등으로 남길 것이다. 명성과 권위 있는 담론의 조직과 이 같은 노력들은 곧바로 아시아와 세계의 우수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제1TV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태국 홍콩언론의 심층보도가 있었고, CNN이 축전기간 중 송도에서 특집 생방송을 확정된 것도 가시적 성과라 하겠다.

둘째는, 국가적 범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명실상부한 국가미래비전의 핵심 축으로 각인하고 송도국제도시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도시의 모델로 온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세계의 경이적 건축물인 인천대교와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 잘 조화된 주거와 환경, 지능형 교통망, 최첨단 ubiquitous 기반 정보기술이 집약된 Tomorrow City 전시관 등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축전 행사장 운영전반에도 RFID와 USN, 스마트 폰 기술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고 덜 경험되어졌던 도시-인천-의 놀라운 변모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주저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적 범주에서 도시축전은 세계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식의 공양과 자긍심 고취의 획기적 계기가 된다. 도시축전은 이를 위해 준비초기부터 '시민참여축전'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제한적이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축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행사장에 시민참여 존을 형성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그리고 주체적 관람객으로서 지금까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인천의 역동적 발전과 비전을 체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인천 그리고 특히 송도국제도시를 주목해왔다. '수상도시 베니스, 뉴욕의 센트럴파크, 모로코의 마라카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을 모두 합친 듯한 꿈의 도시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송도가 이제는 차세대 동북아 금융 및 비즈니스의 허브도시가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자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외신보도가 아니더라도, 인천은 오는 2020년까지 물류와 첨단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Interview CONFERENCES

도시재생컨퍼런스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 VC-10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은 지난 2009년 8월 6일~7일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인천송도 국제도시 내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도시재생 컨퍼런스는 8월 7일부터 80일간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오프닝 행사로, 도시재생을 통한 명품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성시가지 도시재생'과 '워터프론트 도시재생'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국제적인 재생사례 발표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8/6 | 14:00

6일 기성시가지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Built-up area urban regene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 김광중: 한국의 도시쇠퇴 실태 및 재생정책의 과제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도시쇠퇴가 한국사회만의 독특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서구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빈곤,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도시쇠퇴는 서구의 도시와 유사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범죄나 마약, 인종차별 등 사회적 배제로 인한 도시 쇠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한국도시정책이 철거를 기본으로 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성하며, 사회적·경제적·물리적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토시와 나가시마 : 쇠퇴도시지역의 재활성화, 도쿄시

토시와 나가시마 미즈비시 부동산회사 부사장은 도쿄의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리카초(OMY)지역에서 진행된 민관협력(PPP)의 방식을 소개하며, 민관협력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한 도쿄의 정책적 변화와 민관협력이 도쿄 재생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우수한 도쿄는 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인프라가 도시의 투자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및 업무중심도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의 재생으로 이어져 도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로버트 지 시블레이 : 사회통합적 근린재생, 뉴욕 버팔로시

로버트 지 시블레이 뉴욕주립대학교 교수는 뉴욕의 버팔로시 사례를 통해 "사회통합적 근린재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버팔로시에서 진행된 도시계획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에 의한 장소만들기 과정을 설명하였다. 시블레이 교수는 버팔로의 장소만들기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법적 권위를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에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신뢰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희경 : 한국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지역 그린인프라 구축의 경험과 문제점

박희경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까지의 도시는 소비의 개념이 강해, 도시 인프라는 소비를 위한 신속한 공급과 버려지는 것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도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은 에코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을 다시 재이용 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에코시스템을 가진 인프라 구조하에서 최대한 재이용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도시 인프라의 재생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타카시 야마모토 : 도심공간의 입체적 이용, 도쿄 미드타운의 프로젝트

타카시 야마모토 미츠이부동산 전무는 도쿄 미드타운 프로젝트는 도쿄와 일본 전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미드타운은 "녹지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설계와 일본 전통문화와의 통합, 지역커뮤니티와의 공존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 야외공간 및 커뮤니티 파크 조성, 열섬효과를 완화하는 녹지옥외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냈으며, 첫 해 누적방문객이 총 3500만명이고, 소매시설의 연 매출은 300억엔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프로젝트임을 발표하였다.



■ 제임스 로우 : 미래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구축, 사이버텍처

제임스 로우 사이버텍처 인터내셔널 대표는, 사이버텍처 노달포인트(cybertecture nodal point)가 미래의 전세계에 걸쳐 정보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홍콩 사례를 통해 정보 전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8/7 | 10:30

7일 워터프론트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Waterfront urban regene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 프레드 쿼터 : 자연과 건축의 새로운 소통, 미국

프레드 쿼터는 자연과 건축의 새로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도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는데, 인천, 토론토 이스트 베이프론트, 런던의 커너리 워프 리버사이드, 서울 세운상가, 춘천, 카자흐스탄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김석철 : 구도심 수상도시화 계획, 한국

김석철 교수는 많은 도시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도시가 지나는 역사와 지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특히 인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제를 서울의 구도심 재생 계획과 비교하여, 인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요소와 인천지역만의 특수한 문제들을 항구지역과 관련된 문제, 교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 후안 부스케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성장, 스페인 바로셀로나

후안 부스케 교수는 바로셀로나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성장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도시의 내부적인 형태변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패턴을 나타내어, 도시의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셀로나의 대도시화의 과정을 설명하며,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 복합적 사용에 대한 연구, 소비와 생산의 균형, 끊임없는 도시의 재발견을 도시의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로 제안하였다.



■ 매튜 카모나 : 도크랜드 - 35년 그 후, 영국 런던

매튜 카모나 UCL 바슬렛 계획 학교장은 영국 도크랜드의 지역의 35년에 걸친 도시재생과정을 시기별로 설명하고 향후 지역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도크랜드의 도시재생 과정은 런던의 물리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혜택들이 모두에게 인지되고, 공유되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렐드 기에테마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제, 네덜란드

렐드 기에테마는 런던, 독일, 네덜란드의 항구도시 개발사례를 발표하였다. 런던의 City East의 옛 항만지역의 도시구조재편, Royal Business park의 주거·상업·교육시설·호텔·레저의 개발 및 Olympic Legacy와 STADIUMPARK의 개발사례와, 그 외 독일의



함부르크 및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암스테르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워터프론트 도시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개발사례를 소개하였다.

■ 닉 리혹 레리 : 싱가포르의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 및 공공리더십, 싱가포르

닉 리혹 레리는 싱가포르를 사례로 공공주도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는 싱가포르와 인천은 1800년대 항구와 배후지로 통하는 여러 교통로를 개설한 데에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지만, 싱가폴은 도시가 아닌 제한된 영토내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천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싱가포르와 인천, 두 도시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조했다.



■ 기타자와 타케루 : 도시를 창조하는 디자인, 요코하마의 과거와 미래, 일본

기타자와 타케루 교수는 요코하마시를 사례로 하여 미래 사회 디자인과 공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요코하마의 발전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며, 공업도시였던 요코하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국제적인 업무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킨 도시 디자인 과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사회의 디자인은 도시와 지역을 단위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하 : 인천내항 지역의 현재와 미래, 한국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항구지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의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의 항만개발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적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사진 맨오른쪽이 토시와 나가시마 교수.



■ 로버트 지 시블레이

Q. Buffalo로 시의 시민참여 경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가 아니라 왜 Buffalo 시에서 그런 시민참여 경험이 나왔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uffalo시는 시민들이 정부나 기업보다는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는 일단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는 나중에 생각할 일입니다. Buffalo시의 대학에는 2700여명의 연구원과 15억불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여기 있는 연구원과 시민들이 모여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현재 있는 Buffalo를 만들었습니다.

■ 토시와 나가시마

Q. 일본 동경역 프로젝트(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카초)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은 관과 민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과 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기 위해 자주 모여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이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에 입장에서는 합의한 사항은 incentive, 지구계획 등 공공계획에 반영합니다.

Q. 인천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은 미나토미나이 21(MM21)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MM21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거품경제를 넘어서, 최근의 금융위기를 넘어서 MM21에 남은 것은 현재 관민협동입니다. 관민협동에서는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공, 민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developer가 아니라 producer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이런 사항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환경부 차관 Takemoto Kazehiko입니다. 이전에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 환경국에서 국제협약, 기후변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작년부터 이 직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포럼에서는 일본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녹색성장 전략은 총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 정부 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녹색소비를 위한 지원, 녹색기술 지원, 그리고 아시아 녹색성장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 적인 전략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국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도시가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인천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코하마도 초기에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코하마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대안을 충분히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창조 할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고 이것이 요코하마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인공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여서 매립지의 환경적인 우수성 예를 들면 생태다양성, 습지, 갯벌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드릴수 없지만, 김포 공을 통하여 오늘 한국으로 왔고 오는 도중에 교통환경,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호텔의 복지 현황, 옥상녹화 등이 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어 많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



저는 Lorants G Lorents입니다. 현재 OECD 환경담당 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에서 통계청에서 통계 업무와 재정부의 재정 담당 업무를 과거에 하였습니다.

OECD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슈를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정책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환경부에서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한 이슈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락한 전망을 해주세요.

기우면와 문제는 서급 OECD 보고서에 나온 정책을 실시할 경우 서급 연세 중분한 사본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어지게 되면 지금의 수십배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고 있나요?

한국은 녹색성장 이슈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부양책으로 사용한 자금 중 80%가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도시 축전이 진행 중인데요, 관람하실 예정이신가요? 관람예정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일(8월 12일) 공식 관람 일정이 있어서 아마도 관람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녹색성장관입니다. 그리고 로봇 전시관도 궁금합니다.



◀2009 세계환경포럼에서 기조연설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

□ 대담 및 기록;

도시재생컨퍼런스-손동필(도시계획연구실 책임연구원)
2009 세계환경포럼-김도희(도시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11일 오전 10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21세기 지구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주제 아래 '2009 세계환경포럼(Global Environment Forum 2009)'이 열렸다. 기조 연설자로 반기문(UN사무총장), Ashok Khosla(세계자연보전연맹), Yann Arthus-Bertrand(UNEP 명예홍보대사)가 초청되었으며,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빈곤과 질병, 기아, 안보불안, 에너지 위기 등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라는 '역경'을 뛰어넘기 위해 용기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지며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앞으로 세계환경에 대한 이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으며, 향후 아시아 및 세계 환경 문제에 관한 인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 개최



한중 주요도시 관광정책의 7대드: 메가이벤트, 실버 의료, 녹색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국가여유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이 지난 3일 오전 10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 연구원 어운덕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연해지역 관광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메가이벤트, 실버관광, 의료관광, 녹색관광’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정책동향과 최신사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Serial Hong(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무국장)이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추진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강병권(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고석면(인하공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김성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한중 연해지역 관광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주한중국대사관, 중국국가여유을 비롯, 상해, 강소, 절강, 산둥, 하북, 복건, 대련, 복경, 광둥, 하남, 산서, 운남 등 중국 연해지역 상시의 공무원, 여행사, 언론사들이 참가했고,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유력 여행사 등 180여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인천, 글로벌화에 앞장, 글로벌 공급사슬 거점으로 발돋움할 때 「제2회 2009,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가 주최하고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어운덕),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회장 진형인)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가 공동주관하는 「제2회 2009, 인천국제물류포럼」이 9월 9-10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연계행사인 '2009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기간 중에 열린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진형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최근 높은 수준의 글로벌 물류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전국에서 구단위 역사 박물관 중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태하천 굴포천과 공원녹지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 등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겉고 싶고 살고 싶은'부평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 명품도시 인천의 경쟁력과 브랜드,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 「한-중일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어운덕)은 지난 24일 인천 송도파크호텔 리라홀에서 '한-중일 도시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8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으로, 지역차원의 조직이 국가간 핵심 경쟁단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동성 교수(서울대), 김유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니평페이 박사(중국사회과학원), 이치가와 히로오 교수(모리가네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메이지대), 강승호 박사(인천발전연구원)가 각국의 도시경쟁력 분석과 도시 발전방안, 국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도시경쟁력 연구결과 등을 발표했으며, 중남부에서는 인천시 발표를 바탕으로, 세계도시 경쟁력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 페이창홍 소장, 모리가섬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미와 야스유키 주임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철선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도시브랜드 TF팀장인 이인재 박사, 인천시 김충일 정책심의회 등이 인천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정립하기 위한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각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경쟁력과 브랜드를 평가하는 독보적인 연구 노하루를 지닌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로 도시경쟁력 분야에 대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인천의 명품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인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혼국 서구청장 초청 연찬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30일 오전 1시 대강당에서 제8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이혼국 서구청장을 초청해 강연 및 연찬회를 가졌다. 이혼국 서구청장은 강연에 앞서 국사책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아시아경대회 주경장 서구 건설과 경인 아라뱃길, 도시철도 등을 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스포츠문화러져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키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서구에 사는 것 자체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가 밝은 서구 건설을 이뤄나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구청장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가 인천시를 성장하게 하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서구 주민의 행복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국가여유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이 지난 3일 오전 10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 연구원 어윤덕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연해지역 관광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메가이벤트, 실버관광, 의료관광, 녹색관광’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정책동향과 최신사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09년도 한·러간 KEEI-ESI 공동 워크숍' 개최(9.27-29):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

◆[행사]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개최(9.28):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개최(9.28):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항공우주교통기술센터 설립기념 세미나' 개최(9.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항공우주교통기술센터 설립기념 세미나' 개최(9.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09-제3차)' 개최(9.29):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 심포지엄 개최(9.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협의회' 개최(9.29):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행사] '2009 STEPI 기술혁신조사 심포지엄' 개최(9.30):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2009년도 한·러간 KEEI-ESI 공동 워크숍' 개최(9.27-29):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행사]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개최(9.28):국토연구원 031-380-0114◆[행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개최(9.28):국토연구원 031-380-0114◆[행사] '항공우주교통기술센터 설립기념 세미나' 개최(9.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항공우주교통기술센터 설립기념 세미나' 개최(9.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09-제3차)' 개최(9.29):국토연구원 031-380-0114◆[행사]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 심포지엄 개최(9.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협의회' 개최(9.29):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행사] '2009 STEPI 기술혁신조사 심포지엄' 개최(9.30):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꿈을 이루는 도시 Surprise 인천 서구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9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구



꿈을 이루는 도시 Surprise 인천 서구

서구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서구는 137.05km² 면적에 40만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천공항고속철도/국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경인고속도로, 경인 아라뱃길, 북항 등 국내 및 국제교통의 관문이며 청라지구,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고부가가치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청라지구 개발 사업

국제 업무 및 관광, 첨단화훼, 스포츠레저단지 조성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 사업기간 : 2003년 ~ 2012년
- 사업위치 : 경서, 원창, 연화동 일원
- 사업규모 : 17,771천m²(538만평)
- 계획인구 : 9만명(8,579천 세대)
- 시행청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 개발방향 : 국제금융단지, 스포츠레저단지, 주거단지 등
- 사업비 : 4조 390억원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 사업위치 : 가정동 57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71천m²(29만평)
- 계획인구 : 3만명(11천 세대)
- 시행청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 사업비 : 2조 8,296억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신속으로
서구가 한국체육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는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
- 사업위치 : 심곡동 일원
- 사업규모 : 1,518천㎡(46만평)
-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 개발방향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미디어촌, 선수촌 등

서구 영어마을(외국어 교육특구)

국제적인 이해와 감각으로 구제무대에서 활동할우수한 인재를
서구 안에서 양성함으로써 베스트에듀서구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 도약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 위 치 : 원당동 555번지
- 면 적 : 3,491㎡(1,058평)
- 주요시설 : 강의실(36실), 체험실(12실), 숙소동, 강당
- 사업내용 : 4층 25개 프로그램, 스타쇼, 찾아가는 영어마을, 할로윈 행사 등 주거단지 등
- 사 업 비 : 4조 390억원 주거단지 등

살아 숨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사료관)



녹청자 발생에 대한 편년(연대)문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신라말 고려초(9~10세기경) 비교적 품질이 우수한 해무리급 청자(일취문제 청자)가 발달하여 지방호족 등 부유한 계층에 보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녹청자기는 고려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서민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도요지의 구조와 양식을 보면 구릉을 타고 서남향으로 쌓아진 요상의 길이가 7.3m 폭이 1.05m, 봉통(아궁이)의 폭이 1.2m의 드물게 보는 소규모의 요지이다. 이와같은 구조양식의 도요지가

일본에서만 두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의 독자적인 것으로 자부해 오고 있었는데 인천 경서동 녹청자도요지가 발굴됨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따라서는 도요기술의 일본 유출경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세어도 어촌 체험장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즐거움과 자연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천연의 자연경관과 어민들의
특별한 생활을 경험하게 함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사업위치 : 원창동 145번지(세어도 일원)
- 사업규모 : 528천㎡(갯벌 990천㎡)
- 사업내용 : 산림습지 생태체험장, 갯벌체험장, 체력단련장, 농-어촌 체험장 등



○ 사업비 : 79억원

승학길 차없는 거리



- 사업기간 : 매년 4월 중(매주 일요일)
- 사업구간 : 심곡동 극동아파트 앞~가정동 복인천 변전소 앞 1.2km
- 사업내용 : 승학길 주변에 나무 식재, 음악회, 미술전시회, 공연 등 문화행사 추진

서구청 컷길 특화가로 조성

넓은 보행로와 녹지, 각종 행사와 축제의 거리로 탈바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및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구청 컷길(서곶길 ~ 승학길) 350m 구간을 특화가로로 조성하여 젊음의 광장 및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장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말 차 없는 거리를 기획하여 구민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며 경관조명 및 이벤트도 마련될 계획이다.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서구는 137.05km² 면적에 40만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천공항고속철도/국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경인고속도로, 경인 아라뱃길, 북항 등 국내 및 국제교통의 관문이며 청라지구,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사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 참관기

Interview

EXHIBITIONS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 참관기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기간 중 u-City 체험관을 전시하고 있는 투모로우시티를 방문했다. 동행 지붕으로 첨단 이미지가 돋보이는 외관부터 특별한 인상을 주는 건물이었다. 아직까지 복합환승센터나 일부 시설이 완공되지 못해 일부만 오픈하고 있는 것이 아쉬웠으나 주변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1층 누들로드를 거쳐 1층의 안내 및 매표 데스크에서 입장권을 보여주며, 매표 정시 또는 30분마다 시작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층 로비에서 기다렸다. 1층 로비에는 5개의 기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드문드문 관람객이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11시 30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30여명이 모여 4층 영상관으로 올라갔다. 영상관에서 인천 홍보자료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관람하고 5층에서는 헬스케어, 전자교육 등 각종 u-서비스 체험을 통해 미래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6층의 u-정원, 옥상정원을 돌아보고 내려오니 12시 20분, 안내 데스크의 안내원 양채은씨(사진)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Q. 방문객 현황은 어떠한가요?

8월 7일 개관 후 현재(9월 9일)까지 33일간 대략 15,000명이 방문했어요. 1일 평균 대략 450명 내외인 셈이죠. 투모로우시티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구요, 매표 정각과 30분에 체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은 한번 입장시 60명 내외로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구요. 관람객들은 투모로우시티의 총 4가지 테마(u-영상관, 미래도시관, 미래생활관, IFEZ 2020) 중 u-영상관에 대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Q. 전시시설 주관자로서 전시의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람이 30분 단위로 하루 총 20회 실시되고, 한번에 60명 내외의 인원밖에 관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에 방문객이 많을 경우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구요, 어떤 때는 단체 관람객의 사전예약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한 개별 관람객이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정말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Q. 전시시설에 대해 아쉬워하는 방문객은 없는지요?

2009년 10월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고, u-광장, u-몰 등 투모로우시티내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유비쿼터스 체험관으로서 좀 더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내원과의 인터뷰를 간단히 마치고, 마침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는 방문객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어색해하면서 피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체험관을 함께 관람한 것에 대한 동질성(?) 때문인지 대부분 쉽게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Q. 관람시설을 둘러본 소감은 어떠세요?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른요금인 5천원인데 지금 갖추어진 시설의 종류나 그런거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 요금에 비하면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편안하게 관람했어요. 미래도시, u-City 어쩌구 해서 첨단기술에 대해 기대도 많이 했는데 구경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4층 u-영상관의 스토리 입체영상관이 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가끔 고장난건지 작동이 잘 안되는 것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Q. 기타 건물내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식당, 매점 등이 대체로 청결하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누들로드의 메뉴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것들이라 좀 아쉽기도 하고, 화장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이정표가 잘 눈에 띄지 않아 찾는데 좀 불편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화장실은 대체로 청결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건물내에서 전체적으로 병원냄새가 나서 좀 그렇더라고요. 주차시설은 자동화되어 있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는 바로 지하 1층의 누들로드로 향했다. 한국관, 일본관, 동남아시아관 등이 있었고, 그 중 우리는 일본관에 들어가 식사를 했다. 누들로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메뉴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인터뷰한 방문객이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는 다소 소박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아 왔던 음식들이 대부분이라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 대담&기록 : 정지원(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기간 중 u-City 체험관을 전시하고 있는 투마로우시티를 방문했다. 돔형 지붕으로 첨단 이미지가 돋보이는 외관부터 특별한 인상을 주는 건물이었다. 아직까지 복합환승센터나 일부 시설이 완공되지 못해 일부만 오픈하고 있는 것이 아쉬웠으나 주변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1층 누들로드를 거쳐 1층의 안내 및 매표 데스크에서 입장권을 보여주고, 매 정시 또는 30분마다 시작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층 로비에서 기다렸다. 1층 로비에는 5개의 기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드문드문 관람객이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9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Interview

VOLUNTEER

자원봉사자

- 대상 : 일반, 통역, 학생 자원봉사자 각 1인
- 일시 : 2009년 9월 4일(금), 오후 1~4시
- 장소 :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내



▲ 최마자(45), 권명희(42) / 여 / 부평구 / 일반인 자원봉사자

Q. 자원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 자원봉사는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 센터에서 인천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다고 문자가 와서 신청을 하고,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사전에 등록하였는데, 도시축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발빠르게 연락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최, 권: 세계도시관 부평구 부스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고, 자원봉사는 2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 늘 자원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도시축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한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처음인데 인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또 부평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Q.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 자원봉사에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방문객 수가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축전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조마조마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축전이 보다 많은 호응을 얻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다녀온 사람들 입에서 축전에 다녀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말을 들어서 입소문도 많이 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축전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인천에서 80일간 하는 행사이니까 끝나는 날까지 별탈없이 도시축전이 잘 끝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 김광민(27) / 남 / 연수구 / 통역자원봉사자

Q. 자원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인천에서 세계도시축전이 열린다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중에 도시축전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보고 직접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세계도시관 중국 하얼빈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사진 설명과 함께 하얼빈에 대해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 밖에서도 축전 홍보요원이 되어 도시축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켓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막상 축전 행사장에 들어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종 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축전장에서 열감지도 하고 여러모로 신경쓰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많이 찾아오셔서 이 좋은 기회를 같이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설애(20) / 여 / 계양구 / 학생자원봉사자

Q. 자원봉사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대학에서 홍보한 자원봉사 지원 광고 모집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인정도 해주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할거라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Q.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유럽생활문화관에서 지금 4일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체가 보람 있고, 점심시간에 행사장 이곳저곳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Q.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볼거리도 많고, 규모도 크고 좋은 행사인데 평일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가장 아쉽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안내만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구성해 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활발한 자원봉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대담&기록 : 김가희(도시경영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지난 9월 4일,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내에서 일반인, 통역,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 등을 물어보았다.

관람객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9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Interview

VISITOR

관람객

“ 청명한 가을 하늘빛이 축제 분위기를 돋아주는 한낮에,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을 찾았다. 연일 보도되는 신종플루의 심각성 때문에 평일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곳곳에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한 프리존'이다, '신종플루도 축전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등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고, 발열감지 기구나 소독용품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쩐지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주제인 'Lightening Tomorrow!'처럼 내일을 찬연히 밝힐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때인 듯 보였다. 활기찬 얼굴로 신기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 공간을 여유롭게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 모두들 흔쾌히 응해주었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축전의 성공을 기원했다. 어렵게 준비한 의미있는 축전의 장이 모두의 소망처럼 빛바래지 않도록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지구책을 내놓고, 인천시민들은 이렇게 크고 뜻깊은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 축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인도에서 온 아룬(Arun) 부부



Q. 인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한국에 와서 들은 내용이지만, 송도가 불과 얼마전까지 거의 허허벌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빌딩과 아파트 등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만하다 싶었습니다. 이런 좋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부 역시 인천에 좀 더 머물면서 더 많이 돌아보고 갈 생각입니다.



백석중학교 3학년 임승훈군 외 8명



Q.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찾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가보고 싶었던 차에 이런 좋은 행사가 마칩 열려서, 아내와 뜻을 같이 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돌아보시면서 인상 깊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계문화의 거리에 고국인 인도도 자리하고 있어서 특히 반가웠습니다. 그밖에 다른 볼거리들도 많고, 여러가지 다양한 테마에 걸맞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축제인데, 신종 플루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관람객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천시에서 여러 매체나 언론을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 현장은 신종 플루의 위험이 없는 프리존이라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행사 홍보는 잘 된 것 같은가요?

3학년 전원이단체관람을 온 것입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TV나 라디오 광고가 빈번해서 익숙했는데, 처음엔 정말로 축제 현장에 오면 '소녀시대'를 만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웃음) 그런데 그렇게 홍보가 잘된 것에 비해 볼거리가 아주 많으 거 같지는 않고 전시와 더욱



찾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서 지루합니다. 다양한 공연이나 콘서트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몰라서 놓치게 되기도 해서 아쉽습니다.

Q.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곳은 어디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봇 박쥐와 카멜레온, 기린 등이 살아 움직이는 로봇전시관에 신기한 것이 많았고, 우주상식에 관한 과학퀴즈를 맞추면 티셔츠를 증정해주는 이벤트가 있어 좋았습니다. 디지털아트관에서 3D 애니메이션 '시티 파라디소'를 상영했는데, 미래 과학기술을 간접체험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우주상식 과학퀴즈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체험한, 미래도시가 하루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을 돌아보면서 불만이다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놀이파크가 유료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장료도 저렴한 편이 아닌데 들어와서 몇 가지 안되는 놀이기구마저 3천원 이상을 주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먹거리도 비싼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신종플루의 영향인지 생각보다 외국인 관람객을 많이 보지 못해서 세계도시축전 같은 느낌이 덜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축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안내표지도 미흡한 것 같은데, 많은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나들이
해트님에서 온 팜터킴(24), 서현규(43), 서찬빈(2) 가족



Q.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어떻게 찾게 되었나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16개 시군에서 각각 네 가정에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람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경남지부에서 운 좋게 우리 가족이 선정이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고 인천은 첫 방문이신지요? 그렇다면 인천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요?

한국에 온 지는 3년 되었고, 인천은 첫 방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너무 큰 도시이고 발전된 곳이라 구경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Q.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관람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봐야 할 것이 더 많지만, 우선은 우리 아가도 좋아하는 테디베어박물관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좋았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우리 가족이 함께인 것이, 특히 찬빈이가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담&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공간을 여유롭게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다. 모두들 흔쾌히 응해주었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축전의 성공을 기원했다. 어렵게 준비한 의미있는 축전의 장이 모두의 소망처럼 빛바래지 않도록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자구책을 내놓고, 인천시민들은 이렇게 크고 뜻깊은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 축전을 만끽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